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Time Spent on Housework by Employed Wives

광주대학 문리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한 경 미

Dept. of Management

Kwangju University

Instructor: Kyeong Mi Han

목 차

| | |
|---|---|
| <p>I. 序 論</p> <p>II. 理論的 背景 및 關聯研究의 考察</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사노동의 개념 2.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3. 가사노동시간 관련변수의 고찰 <p>III. 研究方法 및 節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도구의 작성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3. 자료의 분석방법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 <p>IV. 結果 및 解釋</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의 배경향 2. 가족환경변수와 가사노동시간 3. 가사노동관련변수와 가사노동시간 4.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 <p>V. 要約 및 結論</p> <p>참고문헌</p>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figure out the amount of time being usually spent on the housework performed by the employed wives and (2) to find out factors influencing the total and the specified housework time.

The major findings are the following:

1) A employed wife spends 374 minutes(6.2 hours) on the average a day on the housework. Compared with research results of the past, this shows little difference, and less 157 minutes than full time homemaker. Time connected with meals is 123minutes, clothing (68), management and marketing(64), family care(61), and housing care(58).

2)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the wife's education level, wife's employment status, income, young child's age and presence of employed housekeeper) significantly differentiates the housework time. In general, a wife with higher SES level spends less time for housework except family care.

3) Housework related variables (planning, preference, performance competency, and performance standard) significantly differentiate the specified houseworks. High planning, preference, and performance competency do not necessarily diminish the housework time except routine houseworks. High performance standard causes her to spend more time.

4) A wife's sex-role attitudes and a husbands attitudes perceived are more traditional, she spends more time.

1. 序 論

1960년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여성의 의식 구조에서의 변화 및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인해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여성의 약 45%를 차지하고¹⁾, 여성의 취업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취업수조에서도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취업주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부의 취업이 주부 자신뿐 아니라, 가족원간의 가사노동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간할당을 예측하는 데는 두가지 관점이 사용되어 왔는데, 먼저 經濟學的 입장은 가족의 效用을 극대화한다는 효용이론에 근거하여 남편과 부인의 참여는 상대적인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社會學的 관점에서는 권력자원이론에 초점을 두고 가사분담은 가족원이 소유한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배우자가 많은 자원을 가진 경우 그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Geerken, Gove 1983, 84).

그런데 가사노동시간 연구들은 주부의 취업유무에 무관하게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Walker外 1976, 1973; Walker 1969; Gove, Peterson 1980). 여성 취업율의 급격한 상승도 남편과 부인의 가사분담에서의 평등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Geerken등(1983)에 의하면 주부가 취업을 했더라도 남편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 할 수 있는 주택과 뜰손질 영역에만 일차적 책임이 있고, 그의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자녀보살핌등은 거의 주부가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취업이 남편의 가사노

동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으나, 그것은 아주 미미하거나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다. 가사노동시간이 비취업주부보다는 취업주부에게서 보다 평등하게 수행되어야 할것이나 아직도 대부분의 가사는 주부에게 편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부의 취업은 주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것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시간의 희소성이 증대되어 가사노동시간 사용에 제약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적은 것은 짧은시간에 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표준이 낮으며, 주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경우 고용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은 남성이나 비취업주부의 총노동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중부담이 주부자신뿐 아니라, 가정생활의 적응이나 質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Pleck(1985, 112)에 의하면 이러한 취업주부의 과중부담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나, 심리적으로 많은 보상을 줌으로써 주부의 적응은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부의 기대가 높거나 남편의 가사참여가 적을 때, 주부는 불만족하게 되어 결국은 남편과 주부 모두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외에도 취업주부의 역할과중과 부정적인 정신건강과의 관련에 관해 분석한 연구들(Pearlin 1975; Kessler外 1982; Cleary外 1983)이 많다.

주부의 역할과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고정된 고

註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1987년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로 나타났다.

용노동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도하에 취업주부의 가사부담은 어느정도이고, 비취업주부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과거와 비교해서 가사노동시간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족환경변수, 가사노동관련변수, 성역할태도 변수로 나누어 규명하고,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부담을 완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및 關聯研究 考察

1. 가사노동의 개념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으로써, 가정생활의 質과 實質所得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Reid(1930)는 家計生産(Household Production)을 가족에 의해 가족을 위하여 수행되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소득, 시장조건, 개인적 성향과 같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가족 외부의 누군가에게 위임되어 시장제화와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더 발전시켜 Beutler(1980)는 인간활동의 결과로 있게되는 생산을 금전이나 교환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가치를 가지는 市場生産과 사용가치를 가지는 家庭生産(Home Production)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정생산을 시장체계에서의 고용자로 대체할 수 있는 분리가능한 생산과 인간의 속성과 활동에 관련된 특성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생산으로 분류하고 전자를 특히 家計生産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에 위의 가계생산과 가정생산개념까지를 포함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들(강신주 1968 ; 윤복자 1975 ; 이인희 1976 ; 임정빈 1981 ; Walker등 1976 ; Hall, Schroeder 1976)을 종합하여 그 영역을 다음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식사관련 - 식사준비, 설거지

(2) 주거관련 - 청소, 집안꾸미기, 가구정리, 문단속, 뜯손질, 집수리

(3) 의복관련 - 세탁, 다림질, 옷정리, 바느질

(4) 가족원보살핌 - 신체적보살핌(아이 밥먹이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교육정서적 보살핌(책읽어주기, 이야기, 공부 돌보기).

(5) 관리·구매 - 집안일 계획, 가계부기록, 구매, 기타(관공서, 은행출입).

2.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차이를 보면, Walker(1967)는 취업, 비취업 주부가 각각 5.3, 8.0시간을, Hall등(1968)은 6.0, 7.7시간, 그리고 Geerken등(1983)은 각각 4.1, 7.4시간을 소비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의 경우 윤복자(1975)는 6.9, 8.4시간을, 이정수(1984)는 각각 5.2, 10.2시간을 소비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평균 2~3시간 더 가사노동시간이 적고, 시대별로 보면 과거보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 가사노동시간 관련변수의 고찰

1) 가족환경변수

Metzen과 Nickols(1978)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연구에서 변수선정시에 다음의 세가지 개념요인을 가설화하였다. 첫째요인인 가사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하는 압력(pressure)요인으로는 가족수, 주거평수, 주택의 화폐가치를 포함하고, 둘째요인인 가사노동시간 투입에 제약(constraint)이 되는 요인으로 주부의 취업지위를, 세째요인인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촉진(Facilitating)하는 요인으로 주부의 교육수준과 소득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주부의 취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이러한 세가지 요인에서 압력요인에 막내자녀연령, 가족유형과 주거유형을 포함하고, 제약요인에 주부의 직업지위를 촉진요인에 가계소득, 교육수준, 가정고용인유무를 포함하여 관련변수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막내자녀연령은 대개의 시간사용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꺾의관련을 가져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주부의 소비시간은 증가하였다.

가족유형은 부모세대가 함께 동거하는지 여부로 구분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부가 취업한

경우 조모의 조력이 큰 부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영주(1977)와 이연주(1984) 연구는 가족유형이 주부의 역할수행과 가사분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여, 가족수의 증가는 가사부담을 증가시키나 조모의 조력은 주부의 가사부담을 경감시키었다.

주거유형은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어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임정빈(1981)은 가사노동시간이 아파트, 양옥, 한옥, 연립주택순으로 적게 소비되어 특히 취사와 의생활 관리시간에 큰 차이를 낸다고 하였다. Walker등(1976)은 주거유형은 주거관리시간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하였다.

주부의 직업지위는 주부의 취업유무 자체보다 행동양식에 더 큰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다(이용학 1985). 이기영(1987)은 전문직 주부가 비전문직이나 비취업주부보다 가사노동을 산업노동으로 많이 대체하는데, 이것은 비전문직 주부일 경우 낮은 소득을 보상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을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계소득은 가정내 노동과 여가 및 남편과 부인의 시간할당에 영향을 미친다(Gronau 1977). Hafstrom등(1983)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절약되는 촉진효과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임정빈(1981), Morgan(1966)과 Walker등(1976)은 소득과 시간사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약하다고 하였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가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으로 가사가 처리되게하는 요인이다(Schultz 1973). Evenson(1983)과 임정빈(1981)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Leibowitz(1974)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자녀양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Nickols(1978)과 Hafstrom 연구(1983)에서 주부의 교육수준은 촉진요인으로 의미가 없게 나타났다.

가정고용인 유무는 가사분담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으로써(김의숙과 서창원 1986), 주부의 가사수행을 조력하는 자원이 된다.

2) 가사노동관련변수

計劃이란 미래의 기준이나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는것으로 計劃性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계획여부를 파악하고자한 것이다. Manning(1968)은 주부가 구매시에 구매목록과 같은 계획을 작성했을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소비되어 보다 시간이 절약되었다고 하였다. Oppenheim(1976)은 주부가 자기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시간계획을 제안하였다.

選好度는 가사 각 영역에 대해 주부가 가지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이는 일에 대한 정열과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일의 빈도나 철저함과 가사노동시간 사용과 피로에 영향을 미친다. Walker등의 연구(1976)에서는 17개 가사영역중 9개 영역에서 선호태도와 소비된 시간에 다소 관련을 보였는데, 선호하는 영역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들(Williams 1968; Oakley 1974; Wheeler & Arvey 1981)도 유사한 결론을 보여주었다.

家事遂行能力은 주부가 어떤 가사를 얼마나 잘 수행하나 하는것을 주부 스스로 평가하여 그 능력을 파악한 것인데, 이것은 주부가 소유한 人的資源으로써 가사를 처리하는데 효율성을 증대시켜 수행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진다. 한편으로 주부는 어떤 과업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해당 가사노동시간을 보다 많이 수행하기로 한다. Wheeler(1984)는 주부와 남편의 가사수행능력은 각 가사책임과 正的으로 관련되어 주부와 남편은 가사를 잘 수행한다고 여길 때 더 많은 가사참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家事遂行標準은 각 가사영역에서 주부가 어느정도의 기준이나 범위를 설정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인데, 이것을 Gross등(1980)은 가정관리의 동기요소로서 보는 반면, Decon과 Firebaugh(1981)은 하나의 요구요인으로 보고 있다. 가사노동에 설정한 표준은 하나의 요구요인으로써 표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3) 性役割態度

성역할태도는 傳統的인 태도나 近代的인 태도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남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구분을 하고,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을 따르는 데 반해, 후자는 성별에 따른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다.

Wheeler와 Arvey(1981)는 夫婦의 노동분담은 전통적-비전통적가치에 관련된 규범적 상호작용에 의

한다고 하였으며, Wheeler(1984)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인 경우보다 더 적은 가사책임을 가진다고 하였다. Mohamed와 Nickols(1983)는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차이가 사회경제적변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性に 근거한 역할기대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한 결과, 단지 일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성역할기대에 따른 가사분배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가족내 노동분담이 성역할태도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문시한 연구들(Blood & Woolfe; Silverman & Nill)도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研究問題 및 假說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취업주부의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변화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총가사노동시간 및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가설 1 : 가족환경변수에 따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 가사노동관련 변수에 따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 성역할태도 변수에 따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내용은 평일 24시간의 시간일기표, 가사노동관련 변수들의 척도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된 척도중에 계획성과 선호도는 5범주로 구성된 리커트형 척도로 10개 가사의 하위영역별로 측정하고, 수행능력, 수행표준과 성역할태도는 4범주로 된 리커트형 척도로 송혜림(1988) 연구에서 신뢰도가 입증된 것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계획성은 각 가사영역에서 '아주 비계획적' 부터 '아주 계획적' 까지 점수를 주어 높은 점수일수록 계획적인 것을 의미한다. 선호도는 각 가사영역에서

'아주 싫어한다' 부터 '아주 좋아한다' 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적인 것을 의미한다. 수행능력은 주부 자신이 각 가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한 것인데, '아주 못한다' 부터 '아주 잘한다' 까지 점수를 주어 높은 점수는 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행표준은 각 가사영역에서 주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표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1점일 경우 표준이 엄격함을, 4점일 경우 표준이 엄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시간일기표는 평일 오전 5시 30분 부터 저녁 12시까지의 시간을 10분간격의 선으로 긋고, 그 사이를 5분 눈금으로 표시하여, 주부가 하루 일과를 마친 시간에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직할시에 거주하며 두자녀를 둔 취업주부로서, 막내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부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주부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선행연구들(Walker 1969, 1976; Gauger 1973; Metzen 1976; Hafstrom 1983; 임정빈 1981) 결과 자녀수와 막내자녀연령이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어서 이를 통제함으로써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표집은 지역차를 고려하여 3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표집조건에 맞는 학생들에게 월, 화요일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어머니가 작성하게 한후 금, 토요일에 회수하고, 일부는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2차방문시에 회수하였다. 조사시기는 비취업주부의 결과(한경미 1987)와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夏節期인 1988년 7월 11일부터 25일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20부를 배포했는데 회수된 자료는 약 160부이고, 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것은 110부이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알기 위해서 빈도분포, 백분율과 평균을 보았다. 또한 가족환경변수, 가사노동관련변수와 성

역할태도에 따른 취업주부의 총가사노동시간 및 영역 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一元分散分析과 t검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별 하위집 단간에²⁾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Scheffé 검증을 적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주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졸, 중졸, 국졸순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다. 막내자녀연령은 국민학교연령이 5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순이다. 주부의 직업지위는 전문기술·사무직이 40%로 가장 많고, 고위전문·관리직, 비전문직 순이다. 가계소득은 100만원 이상이 37.3%로 가장 많고, 소득이 높은데서 낮은 순으로 많다.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68.2%로 아파트보다 많고, 가족유형은 핵가족이 71.8%로 확대가족보다 많다. 가정고용인 유무를 보면 파출부나 가정부를 고용한 가정은 14.6%로 대부분은 고용하지 않고 있다.

IV. 結果 및 解析

1.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배분경향

표 1을 보면 취업주부의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은 374분(6.2시간)이다. 이것은 Walker(1967)의 것보다 56분 많고, Hall(1968)보다는 14분, 그리고 Geerken(1983)보다는 128분 더 많은 것이다. 국내연구로는 윤복자(1975)와는 별 차이가 없고, 이정수(1984)보

다는 약 60분 많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 취업주부는 외국의 취업주부보다 가사에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고, 과거와 비교해보면 결코 감소하지않고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점은 가사노동의 산업화, 기계화, 집단화를 통한 사회로의 이양은 한계가 있으며(이기영 1981),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적정량의 가사노동은 그 내용과 형태는 변화했는지라도 여전히 본질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것임을 시사해준다 할 수 있다.

취업유무에 따른 시간차이를 보면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157분(2.6시간) 더 적게 소비한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들(윤복자 1975; Walker 1976; Hall & Schroeder 1968; Geerken 1983)과 비교할 때 유사한 것이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주부가 취업을 한 경우라도 일정수준의 가사노동양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의 배분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식사관련영역은 123분(2.1시간으로 전체시간의 약 1/3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비취업주부보다 약 50분 적은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영역인 의복관련영역은 68분으로 비취업주부보다 24분 적다. 비취업주부는 식사관련영역 다음으로 가족원보살핌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이 점이 차이가 있다. 다음은 관리 및 구매영역으로 비취업주부보다 13분 정도 적은 64분을 소비하고 있다. 배분순위에서 볼 때 비취업주부에서 이 영역은 가장 낮는데 취업주부는 중간위치에 속한다. 다음으로 가족원보살핌(61분)과 주거관련영역(58분)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표 1.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단위 : 분(시간)

| 가사노동 취업유무 | 식사관련 | | 주거관련 | | 의복관련 | | 가족원보살핌 | | 관리및구매 | | 총가사노동 |
|--------------|------|-----|------|-------|------|-----|--------|-------|-------|----|----------|
| | 식사준비 | 설거지 | 청소 | 집안꾸미기 | 세탁 | 옷손질 | 신체적 | 교육정서적 | 계획 | 구매 | |
| 취업주부 | 85 | 38 | 42 | 16 | 44 | 24 | 25 | 36 | 26 | 38 | 374(6.2) |
| 계 | 123 | | 58 | | 68 | | 61 | | 64 | | |
| *비취업주부 | 118 | 57 | 58 | 23 | 55 | 37 | 46 | 61 | 31 | 46 | 531(8.9) |
| 계 | 175 | | 81 | | 92 | | 107 | | 77 | | |

*한경미 1987연구

註 2) Breakdown으로 점수의 선형성여부를 본 결과, 많은 변수의 점수분포가 곡선적인 것으로 나타나 분산분석을 적용하였고, 이에따라 집단을 평균과 빈도를 고려하여 3~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2. 가정환경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 변수 | 가사노동영역 | | 식사관련 | | 주거관련 | | 의복관련 | | 가족원보살핌 | | 관리및구매 | | 총가사노동 |
|----------|----------|----|-------|---------|----------|---------|-----------|-----------|--------|--------|--------|-------|----------|
| | 집단 | N | 식사준비 | 실긋이 | 청소 | 집안꾸미기 | 세탁 | 옷손질 | 신체적 | 교육정서적 | 계획·가계부 | 구매 | |
| 주부교육수준 | 중졸이하 | 33 | 93 | 48 | 47 | 15 | 49 | 23 | 23 | 24 | 25 | 32 | 382 |
| | 고졸 | 50 | 80 | 41 | 47 | 18 | 51 | 31 | 31 | 42 | 27 | 41 | 407 |
| | 대졸이상 | 27 | 84 | 23 | 26 | 12 | 25 | 12 | 37 | 37 | 24 | 35 | 302 |
| | F값 | | .670 | 3.287** | 5.827*** | .493 | 9.786**** | 5.884**** | 1.459 | 2.432* | .237 | 1.494 | 3.646** |
| 막내자녀연령 | 유치원 | 8 | 91 | 16 | 31 | 8 | 33 | 17 | 37 | 48 | 26 | 40 | 346 |
| | 국민학교 | 64 | 91 | 46 | 46 | 18 | 45 | 25 | 29 | 40 | 27 | 38 | 405 |
| | 중학교 | 25 | 69 | 28 | 34 | 11 | 41 | 22 | 17 | 21 | 19 | 27 | 289 |
| | F값 | 13 | 82 | 37 | 48 | 17 | 50 | 28 | 23 | 33 | 33 | 46 | 397 |
| | F값 | | 1.151 | 2.766** | 1.584 | .947 | .790 | .412 | 2.217* | 2.114* | 1.450 | 1.870 | 3.148** |
| 주부직업지위 | 비전문직 | 25 | 70 | 35 | 46 | 15 | 47 | 27 | 22 | 27 | 28 | 36 | 352 |
| | 전문기술·사무직 | 41 | 92 | 50 | 53 | 22 | 52 | 30 | 32 | 40 | 27 | 41 | 440 |
| | 고위전문·관리직 | 44 | 86 | 28 | 30 | 8 | 33 | 15 | 22 | 35 | 24 | 33 | 315 |
| | F값 | | 1.632 | 3.914** | 7.25**** | 4.360** | 5.891*** | 4.417*** | 2.490* | 1.143 | .341 | 1.041 | 6.788*** |
| 가계소득 | 50만원 미만 | 31 | 94 | 49 | 56 | 21 | 52 | 30 | 29 | 36 | 28 | 39 | 435 |
| | 50~100만원 | 48 | 80 | 38 | 42 | 14 | 47 | 24 | 30 | 33 | 22 | 34 | 364 |
| | 100만원이상 | 41 | 81 | 31 | 34 | 12 | 36 | 19 | 21 | 38 | 27 | 37 | 335 |
| | F값 | | .704 | 2.301* | 5.347*** | 1.399 | 3.566** | 1.643 | 1.784 | .202 | .887 | .402 | 3.277** |
| 주거유형 | 단독주택 | 75 | 90 | 42 | 43 | 15 | 44 | 23 | 27 | 34 | 27 | 37 | 381 |
| | 아파트 | 35 | 74 | 32 | 43 | 17 | 45 | 25 | 24 | 40 | 23 | 35 | 375 |
| | T값 | | 1.49 | 1.35 | .00 | -.61 | -.13 | -.36 | .77 | -.82 | 1.16 | .35 | .73 |
| 가족유형 | 핵가족 | 79 | 84 | 39 | 42 | 17 | 44 | 23 | 26 | 35 | 26 | 36 | 372 |
| | 확대가족 | 31 | 85 | 38 | 44 | 11 | 45 | 26 | 26 | 37 | 26 | 37 | 376 |
| | T값 | | .01 | -.38 | 1.53 | -.18 | -.49 | -.04 | -.37 | -.01 | -.07 | -.08 | -.10 |
| 가정고용인 유무 | 무 | 95 | 88 | 42 | 45 | 14 | 48 | 25 | 28 | 36 | 25 | 36 | 389 |
| | 유 | 15 | 64 | 16 | 27 | 23 | 16 | 16 | 18 | 30 | 28 | 40 | 278 |
| | T값 | | 1.89* | 2.63*** | 2.13** | -.135 | 4.56**** | 1.52 | 1.49 | .58 | -.50 | -.55 | 2.87*** |

*p<0.1 **p<0.05 ***p<0.01 ****p<0.001

+ 시간연구에서는 유의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므로 유의수준을 대개 0.1이하로 보는 연구들이 많다.

가족원보살핌은 취업유무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의복과 관리 및 구매 영역에 가족원보살핌이나 주거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것은 취업주부가 가사노동과 고용노동을 함께 병행하는 데서 시간제약을 가지게 됨으로써 가족원보살핌이나 집안꾸미기와 같은 비일상적인 측면의 가사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그리고 특히 가족원보살핌 시간이 적은 것은 조사대상 주부의 자녀연령에서 보살핌을 많이 필요로 하는 0~5세 자녀를 제외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외국의 취업주부와 비교하면(Walker 등 1976; Hall 등 1968), 우리나라 주부는 住居보다 의복관련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서 차이가 나타난다.

2. 가족환경변수와 가사노동시간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별로 상이한 집단간에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차이를 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주부의 총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졸이상 집단이 가장 시간 소비가 적고 고졸집단이 가장 많다. Scheffé test 결과 고졸과 대졸집단 간에 특히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막내자녀연령에 따라서는 자녀가 중학교연령일 때 가장 적고, 국민학교연령일 때 가장 많으며, Scheffé test 결과 국민학교와 중학교연령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주부의 직업지위에 따라서는 주부가 고위전문·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소비시간이 가장 적고 전문기술·사무직에 종사할 때 가장 많다. Scheffé test 결과 전문기술·사무직이 비전문직 및 고위전문·관리직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시간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é test 결과 50만원미만 집단과 100만원이상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주부의 직업지위와 결합하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화와 용역을 구매함으로써 가사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정고용인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주부의 시간소비량이 크게 적다. 이상과 같이 주거 유형과 가족유형을 제외하고는 각 변수들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부의 교육수준은 설겅이, 청소, 세탁, 옷손질, 가족원의 교육정서적 보살핌영역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설겅이 시간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고, 청소, 세탁, 옷손질시간은 대졸이상집단이 가장 적으며, 교육정서적 보살핌시간은 주부가 고졸인 집단이 가장 많고, 중졸이하일 때 가장 적다. 막내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설겅이, 가족원의 신체적, 교육정서적 보살핌영역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설겅이시간은 자녀가 국민학교연령에 있을 때 가장 많고, 유치원연령일 때 가장 적으며, 신체적, 교육정서적 보살핌시간은 자녀가 중학교 연령일 때 가장 적고, 국민학교, 유치원으로 내려갈수록 많다. 주부의 직업 지위에 따라서는 설겅이, 집안꾸미기, 옷손질, 청소, 세탁 그리고 신체적 보살핌시간이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데, 모든 영역에서 주부가 고위전문관리직에 종사할 때 소비시간이 가장 적고, 기술사무직에 종사할 경우 가장 많았다.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설겅이, 청소, 세탁시간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주부의 시간양이 적게 나타났다. 주거유형과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고용인 유무는 식사준비, 설겅이, 청소와 세탁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고용인이 있을 때 주부의 시간소비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시간소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들은 주로 신체적인 가사영역으로 이들 영역은 타인에게 위임하여도 가사노동의 질적이 면에서 비교적 차이가 없는 대체 가능한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족 환경변수에 따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3. 가사노동관련 변수와 가사노동시간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변수집단별로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차이를 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에 대해 가지는 계획성, 선호도와 수행표준은 점수범위에서 볼때 다소 높은 편이고, 주부자신의 가사수행능력은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취업주부의 총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계획성이 중간집단에 속할때 가장 많고, 가사수행능력은 높을수록

표 3. 가사노동관련변수와 가사노동시간

| 가사노동영역 | | 식사관련 | | 주거관련 | | 의복관련 | | 가족원보살핌 | | 관리업무 | | 총가사노동 | |
|--------|-------------|-------|------|---------|-------|---------|----------|---------|---------|----------|----------|-------|------|
| 변수 | 집단(집수) | 식사준비 | 설거지 | 청소 | 집안꾸미기 | 세탁 | 옷손질 | 신체적 | 교육정서적 | 계획·가계부 | 구매 | | |
| 계획성 | N | | | | | | | | | | | | |
| | 낮은집단(10~24) | 30 | 81 | 42 | 38 | 9 | 42 | 17 | 18 | 36 | 17 | 37 | 364 |
| | 중간집단(25~30) | 54 | 91 | 36 | 45 | 20 | 44 | 31 | 30 | 31 | 31 | 36 | 381 |
| | 높은집단(31~40) | 26 | 67 | 39 | 45 | 20 | 47 | 23 | 31 | 83 | 23 | 38 | 369 |
| | F값 | .856 | .282 | 3.422** | .597 | 3.422** | .295 | 3.651** | 3.422** | 3.044** | 5.426*** | .019 | .104 |
| 수행능력 | N | | | | | | | | | | | | |
| | 낮은집단(15~27) | 31 | 79 | 28 | 34 | 14 | 18 | 16 | 19 | 38 | 21 | 24 | 331 |
| | 중간집단(28~31) | 46 | 88 | 39 | 41 | 16 | 45 | 25 | 29 | 34 | 28 | 40 | 380 |
| | 높은집단(32~60) | 33 | 74 | 41 | 49 | 15 | 46 | 29 | 19 | 20 | 25 | 36 | 406 |
| | F값 | .580 | .710 | 1.510 | .109 | 2.970* | 1.649 | 2.084 | .898 | 1.554 | 2.879* | 1.587 | |
| 신호도 | N | | | | | | | | | | | | |
| | 낮은집단(10~25) | 37 | 75 | 39 | 37 | 11 | 42 | 17 | 18 | 34 | 18 | 29 | 351 |
| | 중간집단(26~30) | 48 | 93 | 36 | 45 | 16 | 46 | 29 | 29 | 36 | 28 | 42 | 381 |
| | 높은집단(31~40) | 25 | 71 | 46 | 51 | 21 | 47 | 34 | 32 | 40 | 28 | 15 | 393 |
| | F값 | 1.923 | .314 | 1.566 | 1.179 | 4.17 | 4.226** | 2.611* | .079 | 2.776* | 2.753* | .553 | |
| 수행표준 | N | | | | | | | | | | | | |
| | 낮은집단(10~27) | 29 | 87 | 38 | 42 | 10 | 44 | 12 | 24 | 36 | 17 | 29 | 340 |
| | 중간집단(28~33) | 55 | 78 | 36 | 41 | 15 | 46 | 27 | 27 | 33 | 30 | 39 | 373 |
| | 높은집단(34~40) | 26 | 97 | 43 | 45 | 22 | 41 | 31 | 27 | 40 | 26 | 40 | 412 |
| | F값 | 1.342 | .288 | .111 | 1.865 | .267 | 4.961*** | .223 | .336 | 4.600*** | 1.612 | 1.253 | |

*p<0.1 **p<0.05 ***p<0.01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부가 가사를 선호할수록, 수행 표준은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영역별로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計劃性에 따라서는 집안꾸미기, 옷정리, 가족의 신체적, 교육정서적 보살핌과 계획 및 가계부기록 시간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집안 꾸미기시간은 계획적일수록 증가하고, 옷정리시간은 계획성이 낮은 집단이 가장 적고, 중간집단이 가장 많다. 신체적 보살핌시간은 계획적일수록 증가하고, 교육정서적 보살핌시간은 중간집단이 가장 적으며, 높은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획 및 가계부 기록시간은 계획성이 낮은 집단이 가장 적고, 중간 집단이 가장 많다. 家事遂行能力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세탁과 구매영역만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탁시간은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구매시간은 수행능력이 낮을 때 가장 적고 중간정도일 때 가장 높다. 選好度에 따라서는 옷정리, 신체적보살핌, 계획 및 가계부기록, 그리고 구매영역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구매시간은 선호도가 높은 집단이 가장 적고 중간 집단이 가장 많으며, 나머지 세영역은 선호할수록 증가하였다. 遂行標準에 따른 차이를 보면 옷정리와 계획 및 가계부 기록 영역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옷정리시간은 수행표준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계획 및 가계부기록 시간은 표준이 낮은 집단이 가장 적고, 중간 집단일 때 가장 많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의할 때 총가사노동시간은 유의하지 않으나 영역별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가사노동관련 변수의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시간소비가 많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할 수 있다.

4.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주부의 성역할태도는 주부가 지각한 남편의 성역할태도보다 더 근대적인 경향을 나타낸다⁴⁾.

취업주부의 총가사노동시간은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주부의 시간소비가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영역별로 보면 主婦의 性役割態度에 따라 세탁과 구매영역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탁시간은 근대적인 집단이 가장 적고 중간집단이 가장 많은데 Scheffé test결과 근대적 집단과 나머지 두집단이 각각 유의하였다. 구매시간은 주부가 전통적일수록 증가하였다.

主婦가 지각한 男便의 性役割態度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세탁과 옷손질시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탁시간은 남편이 전통적인 집단에서 가장 적고, 중간집단이 가장 많으며, Scheffé test결과 전통적이고 근대적인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옷손질시간은 중간집단이 가장 적고 전통적인 집단이 가장 많다.

이상과 같이 남편의 성역할태도에서 세탁영역을 제외하고는 주부나 남편의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이 근대적인 집단보다 주부의 시간소비가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총가사노동시간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영역별 시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할 수 있다.

가사노동관련변수와 성역할태도가 총가사노동시간에서 유의하지 않고, 영역별로는 의미있게 나타난 데 대해서는 몇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이러한 사회심리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가사노동분담보다 時間에서는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효과가 영역들간에 서로 상쇄된다는 점, 그리고 가사노동이 주부의 당연한 의무로 되어 있어 특정가사에 대한 태도변수에 따라 해당시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주부는 대체로 일정수준의

註 3) 계획성은 10~40 점수범위를 가지며, 평균 27.2, 표준편차 4.5이다.
수행능력은 15~60 점수범위를 가지며, 평균 29.4, 표준편차 3.9이다.
선호도는 10~40 점수범위를 가지며, 평균 27.2, 표준편차 4.6이다.
수행표준은 10~40 점수범위를 가지며, 평균 29.9, 표준편차 4.4이다.

註 4) 주부의 성역할태도는 8~32 점수범위를 가지며, 평균 18.6, 표준편차 4.2이다. 주부가 지각한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8~32 점수범위를 가지며 평균 15.9, 표준편차 3.7이다.

단위: 분

표 4.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시간

| 가사노동영역 | 식사관련 | | 주거관련 | | 의복관련 | | 가족원보살핌 | | 관리및구매 | | | 총가사노동 | |
|-----------|------|--------|-------|------|------|-------|--------|----------|--------|------|-------|-------|--------|
| | 변수 | 집단(점수) | N | 식사준비 | 실적이 | 청소 | 집안꾸미기 | 세탁 | 옷손질 | 신체적 | 교육정서적 | | 계획·가계부 |
| 주부의 성역할태도 | | | | | | | | | | | | | |
| | | | | 81 | 39 | 50 | 23 | 51 | 26 | 24 | 37 | 33 | 47 |
| | | | 20 | 79 | 36 | 44 | 11 | 51 | 28 | 25 | 33 | 26 | 35 |
| | | | 44 | 92 | 41 | 38 | 17 | 35 | 20 | 28 | 37 | 22 | 33 |
| | | | 46 | .788 | .207 | 1.261 | 2.164 | 4.917*** | 1.347 | .304 | .129 | 2.102 | 2.265* |
| | | | F값 | | | | | | | | | | |
| | | | 20 | 94 | 45 | 51 | 20 | 27 | 34 | 29 | 36 | 20 | 43 |
| | | | 53 | 79 | 39 | 44 | 16 | 45 | 21 | 24 | 32 | 19 | 34 |
| | | | 37 | 88 | 34 | 36 | 12 | 37 | 23 | 28 | 40 | 20 | 37 |
| | | | F값 | .757 | .539 | 1.810 | .903 | 2.716* | 2.269* | .406 | .450 | 1.396 | .975 |
| | | | 439 | | | | | | | | | | |
| | | | 360 | | | | | | | | | | |
| | | | 358 | | | | | | | | | | |
| | | | 1.887 | | | | | | | | | | |

*p<0.1 **p<0.05 ***p<0.01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V. 要約 및 結論

첫째, 취업주부는 가사노동에 하루평균 374분(6.2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의 취업주부보다 많은 것이고, 과거의 가사노동시간양과 비교할 때 결코 감소된 것이 아니다. 취업주부는 주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구매력이 증가하고,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달로 많은 가사노동이 사회로 이양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만 변했을 뿐 일정한 양의 가사노동은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여전히 본질적인 것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취업주부와 비교해보면 취업주부는 가사노동에 157분(2.6시간) 더 적게 소비한다. 이것은 주부가 취업할 경우 남편과 기타 가족원의 가사참여가 증가한 결과이기보다는 주부의 시간압박으로 인한 제약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역별 시간배분을 보면 식사관련영역이 123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의복관련(68분), 관리 및 구매(64분), 가족원보살핌(61분), 그리고 주거관련(58분) 영역순이다.

둘째, 가족환경변수에서 주거유형과 가족유형을 제외한 5개 변수에 따라 주부의 총가사노동시간과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주부의 시간소비양은 주부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에 대체로 적지만, 가족원의 교육·정서적 보살핌 시간은 많다. 막내자녀는 국민학교연령기에 있을 때 시간소비양이 가장 많고, 가정고용인을 고용할 경우에 가사노동시간이 적다. 이것으로 보아 앞으로 예상되는 생활수준과 주부교육수준 및 직업지위의 향상에 따라 주부의 신체적측면의 가사는 시장에서의 재화와 용역으로 대체될 것이나, 質的이고 정서적인 측면의 가사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여 취업주부의 총가사노동시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가사노동관련변수인 계획성, 수행능력, 선호도, 수행표준에 따라서는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계획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한다고해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비신체적인 측면의 가사는 주부가 계획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가사수행능력도 영역에 따라서는 능력수준이 높을 때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또한 해당 가사를 주부가 선호할 수록 거기에 투여하는 시간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수행표준은 낮은 집단보다 높게 설정한 집단의 시간소비 양이 많다.

넷째, 성역할태도에 따라서는 주부의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부의 성역할태도는 근대적일 대보다 전통적일 경우에 세탁과 구매영역에 소비한 시간이 많다. 주부가 지각한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세탁영역에서는 근대적일 때, 그리고 옷손질시간은 전통적일 때 주부의 시간양이 증가하였다. 대체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비취업주부에게서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질지 모르나, 취업주부에게는 역할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직도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은 전통적인 성역할관념과 남편의 낮은 관심으로 불평등하게 주부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가사노동에서의 심한 불평등은 취업주부의 총노동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부의 역할과중과 시간압박을 야기시킨다. 또한 주부의 남편에 대한 가사참여 기대는 과거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어(Pleck 1985), 주부는 과거보다 더 큰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족의 경험은 주부의 심리적 복지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편과 가족원들에게까지 파급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만이 소득별이자 역할을 담당하던 과거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많은 취업주부는 남성에 국한되었던 이 수단적(instrumental)역할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남성이 가사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생활의 균형적이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자녀가 어리거나,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부는 가사노동부담이 많으므로 남편의 협조가 더욱 증가되어야 한다.

둘째, 주부가 취업한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높은 수행표준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취업주부의 역할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므로 남녀의 역할이나 태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태도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주부의 경우는 가사노동의 분담이나 협조차원 보다는 가사노동자체의 성격변화가 요구된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종래의 인식은 바뀌어야 하며, 주부와 가족원은 가사노동에 대한 범위를 보다 융통성있게 적용하여 신체적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 가사의 양을 줄이고,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소득증 일부는 가사노동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대체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제한된 짧은 시간에 가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강신주·서영숙·최보가 : 생활시간관리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6 : 133-141, 1968
- 2)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한국인의 사회지표 1988
- 3) 김의숙·서창원 :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관찰.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5 : 425-439, 1986
- 4) 송혜림 :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5) 유영주 :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수행상의 문제. 서울대학교 가정대 논문집 2 : 1977
- 6) 윤복자 : 가사노동시간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2) : 59-77
- 7) 이기영 :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본 가사노동의 의의와 그 근거. 고려대학교 사대논집 6 : 207-223, 1981
- 8) 이기영 :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9) 이연주 :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 131-146, 1984
- 10) 이용학 :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11) 이정수 :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 103-131, 1984
- 12) 임정빈 :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 73-87, 1981

- 13) 한경미 :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14) Beutler IF & Owen AJ :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1) : 16-26, 1988
- 15) Evenson RE : The allocation of women's time-an international comparison : *Behavior Science Research* 17(3, 4) : 196-215, 1983
- 16) Gauger W : *Journal of Home Economics* 12-15, 1973
- 17) Geerken M & Gove WR : At home and at work-the family's allocation of labor.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Sage publications, 1983
- 18) Goebel KP & Hennon CB : Husband-wife division of labor and quality of family life : *Journal of Consumer Studies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 61-72, 1984
- 19) Gronau R :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 1099-1124, 1977
- 20) Hafstrom JL & Schram VR : Housework time of wives-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 245-255
- 21) Hall FT & Schroeder MP : Time spent on household tasks :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1970
- 22) Leibowitz A : Education and home production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64(2) : 243-250, 1974
- 23) Mohamed abdel-Ghany & Nickols SY :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the case of dual earner families :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2) : 159-167, 1983
- 24) Nickols SY & Metzen EJ :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 85-97, 1978
- 25) Oakley A : *The sociology of housework*. New York : Pan-ton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74
- 26) Pleck JH : *Working wives, working husbands*.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Sage Publications, Inc.
- 27) Schultz TW :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 *American Economic Review* 51 : 1-17, 1961
- 28) Stafford K : The effects of wife's employment time on her household work time :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 257-266
- 29) Walker KE : Homemaking still takes time : *Journal of Home Economics* 61(8) : 621-624, 1969
- 30) Walker KE : Household work time-its implication for family decis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7-12, 1973
- 31) Walker KE & Woods ME : Time use-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
- 32) Wheeler CL & Arvey RP :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 10-20, 1981
- 33) Wheeler CL : Factors related to household and child care task responsibility of spouses in houses in Houston. *Texa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 101-119, 1984